韓 國 保 健 看 護 學 會 誌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1. No. 2, 158 - 170, September 2007

중심단어 : 노인, 성생활, 삶의 만족도

# 어촌지역 노인들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이 인 숙* · 김 향 숙**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성문화가 과거와는 달리 극도로 개방되었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는 아직 금기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과 성은 여전히 젊은 세대의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성을 주제로 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젊은 남녀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성은 합법적인 관계를 떠나 항상 미화되고 있다(Yoo, Kang, & Hong, 2003).

인간의 성은 성욕, 생식, 애정이라는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노화로 인하여 생식기능이 끝났다고 해도 모든 기능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간주하거나 노후의 이성간의 교류가 풍기문란을 가져온다는 등의 생각이 만연되어 있다. 심지어 노인의 성적 욕구의 표출은 사회적 웃음거리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신장애로 여겨지는 경우까지도 있다(Moon, 1999).

50세에서 100세까지 노인의 성생활을 고찰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노인성 질환이 없는 경우에 70세 노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할 정도로 성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성관계 횟수에 대한 보고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노년의 성생활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Kim, 2000). 또한 노년기의 성생활은 서로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주고, 연대감을 부여하며 자기 유용감을 얻게 하는 등 정신적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즉, 노년기의 고독감 해소와 삶에 대한 보람을 높여주는 윤활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Kim & Han, 1996).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이 아니며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도 과거에 비해 호전되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에 대한 욕구는 살아 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년기의 성생활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령사회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고령친화사업에 발맞추어 간호의 확대된 역할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차보건의료를 실천하는 보건진료원은 노년기를 보다 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성에 관한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Ahn, 2002; Kim, 2002; Park, 2002; Yang, Kim, Jeong, & Kim, 2003).

이에 지역사회의 하나이며 1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 극동정보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ilee001@hanmail.net, ilee001@kdc.ac.kr)
** 동천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장

어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생활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어촌지역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노인 성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지역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어촌지역 노인의 성생활 특성을 파악한다.
3) 어촌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4) 어촌지역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5) 어촌지역 노인의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다.

### 3. 용어 정의

1) 성생활

성생활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키스, 애무, 성교 및 남성 또는 여성 본인 혼자의 자위로 구분되고(Kang, 2003)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교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에 관련된 8개 문항의 도구로 측정된 내용을 의미한다.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이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Kim, 2001).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 문항의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Ⅱ.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어촌지역 노인들의 성생활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N 군의 1개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400명 중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 도구

1) 성생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생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성생활의 중요성, 성생활 유무, 성생활 빈도, 성생활 상대,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방해요소, 성욕구의 해결방법, 젊은시절의 성생활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 측정 도구는 1961년에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 LSIZ(Life Satisfaction Index-Z)를 Park(2002)이 수정한 것으로서 자아성취감 3문항, 현실만족감 2문항, 자아존중감 3문항, 노화에 대한 태도 2문항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여 대상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보건진료원이 일대 일 면접법으로 설문지를 직접 읽어 드린 후 노인이 응답한 내용을 대신 기입하거나 원하시는 분은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한 300명의 대상자 가운데 자료분석에 미비한 3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62

부(87%)를 최종 분석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통계적 처리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특성 및 삶의 만족도는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 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중 남성노인이 49.2%, 여성노인이 50.8%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5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70대 38.2%, 80대 3.8%의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8.8세였다. 교육수준은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초졸(서당)이 가장 많아 각각 56.6%, 85.0%를 차지하였고 배우자 유무에 있어 남성노인의 79.1%, 여성노인의 45.9%가 배우자가 있었다. 남성노인의 79.1%, 여성노인의 41.4%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성노인의 66.7%, 여성노인의 84.2%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의 69.8%, 여성노인의 60.9%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2)

| Characteristic | Classification | Male | Female | Total |
|---|---|---|---|---|
| | | n(%) | n(%) | n(%) |
| Gender | | 129(49.2) | 133(50.8) | 262(100.0) |
| Age(years) | 60~69 | 84(65.1) | 68(51.1) | 152( 58.0) |
| | 70~79 | 40(31.0) | 60(45.1) | 100( 38.2) |
| | 80≤ | 5( 3.9) | 5( 3.8) | 10( 3.8) |
| Education | Uneducated | 0( 0.0) | 14(10.5) | 14( 5.3) |
| | Elementary school | 73(56.6) | 113(85.0) | 186( 71.0) |
| | Middle school | 42(32.6) | 4( 3.0) | 46( 17.6) |
| | High school≤ | 14(10.9) | 2( 1.5) | 16( 6.1) |
| Presence of Spouse | Yes | 102(79.1) | 61(45.9) | 163( 62.2) |
| | No | 27(20.9) | 72(54.1) | 99( 37.8) |
| Residence | Alone | 18(14.0) | 57(42.9) | 75( 28.6) |
| | With spouse | 102(79.1) | 55(41.4) | 157( 59.9) |
| | With son couple | 4( 3.1) | 13( 9.8) | 17( 6.5) |
| | With spouse, son couple | 4( 3.1) | 6( 4.5) | 10( 3.9) |
| | Others | 1( 0.8) | 2( 1.5) | 3( 1.2) |
| Religion | Yes | 86(66.7) | 112(84.2) | 112( 75.6) |
| | No | 43(33.3) | 21(15.8) | 64( 24.4) |
| Economic level | Rich | 12( 9.3) | 5( 3.8) | 17( 6.5) |
| | Moderate | 90(69.8) | 81(60.9) | 171( 65.3) |
| | Poor | 27(20.9) | 47(35.3) | 74( 28.3) |
| Spending money a month(won) | 〈50,000 | 4( 3.1) | 5( 3.8) | 9( 3.4) |
| | 50,000≤ 〈100,000 | 25(19.4) | 30(22.6) | 55( 21.0) |
| | 100,000≤ 〈200,000 | 49(38.0) | 59(44.4) | 108( 41.2) |
| | 200,000≤ 〈300,000 | 28(21.7) | 30(22.6) | 58( 22.1) |
| | 300,000≤ | 23(17.8) | 9( 6.8) | 32( 12.2) |
| Economic supporter | Myself | 76(58.9) | 31(23.3) | 107( 40.8) |
| | Spouse | 18(14.0) | 46(34.6) | 64( 24.4) |
| | Son couple | 30(23.3) | 45(33.8) | 75( 28.6) |
| | Others | 5( 3.9) | 11( 8.3) | 16( 6.1) |
| Perceived health condition | Healthy | 53(41.1) | 34(25.6) | 87( 33.2) |
| | Moderate | 56(43.4) | 51(38.3) | 107( 40.8) |
| | Unhealthy | 20(15.5) | 48(36.1) | 68( 26.0) |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의 38.0%, 여성노인의 44.4%가 한달 용돈이 10~2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조달에 있어 남성노인의 58.9%는 본인이, 여성노인의 34.6%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남성노인의 43.4%, 여성노인의 38.3%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 2. 대상자의 성생활 특성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성생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남성노인의 41.1%, 여성노인의 16.5%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남성노인의 62.8%, 여성노인의 24.8%는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59.3%, 여성노인의 63.6%가 한달에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노인 81명과 여성노인 33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상대를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성생활 상대로 85.2%가 배우자였고 다음은 가까운 친구 19.8%, 유흥업소 여성이 18.5%의 순이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90.9%가 배우자였고 다음은 노인단체나 경로당 동년배 6.1%, 가까운 친구 3.0%의 순으로

〈Table 2〉 Pattern of sexual life (N=262)

| Variable | Classification | Male | Female | Total |
|---|---|---|---|---|
| | | n(%) | n(%) | n(%) |
| Importance of sexual life | Important | 53(41.1) | 22(16.5) | 75(28.6) |
| | Moderate | 47(36.4) | 60(45.1) | 107(40.8) |
| | Unimportant | 29(22.5) | 51(38.3) | 80(30.5) |
| Performance of sexual life | Yes | 81(62.8) | 33(24.8) | 114(43.5) |
| | No | 48(37.2) | 100(75.2) | 148(56.5) |
| Frequency of sexual life | 1 time a week≦ | 14(17.3) | 1( 3.0) | 15(13.2) |
| | 1 time a month≦ | 48(59.3) | 21(63.6) | 69(60.5) |
| | 1 time per two month | 16(19.8) | 7(21.2) | 23(20.2) |
| | Don't know | 3 (3.7) | 4(12.1) | 7( 6.1) |
| Partner of sexual life (multiple reply) | Spouse | 73(90.1) | 30(90.9) | 99(86.8) |
| | Intimate friend | 16(19.8) | 1( 3.0) | 47(41.2) |
| | Same age bracket | 1( 1.2) | 2( 6.1) | 3( 2.6) |
| | Ruined woman | 15(18.5) | 0( 0.0) | 15(13.2) |
| | Others | 1( 1.2) | 1( 3.0) | 2( 1.8) |
| Satisfaction of sexual life | Satisfied | 47(58.0) | 15(45.5) | 62(54.4) |
| | Moderate | 30(37.0) | 17(51.5) | 47(41.2) |
| | Unsatisfied | 4( 4.9) | 1( 3.0) | 5( 4.4) |
| Disturbance of sexual life (multiple reply) | Shame to sexual intercourse | 5( 3.9) | 44(33.1) | 49(18.7) |
| | Worry about health | 33(25.6) | 20(15.0) | 53(20.2) |
| | Worry about coitus failure | 28(21.7) | 2( 1.5) | 30(11.5) |
| | Immodest | 23(17.8) | 41(30.8) | 64(24.4) |
| | Partner's nonacceptance | 44(34.1) | 3( 2.3) | 47(17.9) |
| | Social ignorance to elderly | 17(13.2) | 13( 9.8) | 30(11.5) |
| | Abscence of sexual partner | 12( 9.3) | 2( 1.5) | 14( 5.3) |
| | Economic problem | 13(10.1) | 4( 3.0) | 17( 6.5) |
| | Ethical conflict | 5( 3.9) | 9( 6.8) | 14( 5.3) |
| | Religion | 1( 0.8) | 0( 0.0) | 1( 0.4) |
| | Others | 4( 3.1) | 16(12.0) | 20( 7.6) |
| Solution of sexual need (multiple reply) | Sexual intercourse with spouse | 73(56.6) | 29(21.8) | 160(61.1) |
| | Depend on will and religion | 10( 7.8) | 10( 7.5) | 20( 7.6) |
| | Devote to another work | 9( 7.0) | 43(32.3) | 70(26.7) |
| | Coitus with ruined woman | 18(14.0) | 0( 0.0) | 1( 0.4) |
| | Masterbation | 6( 4.7) | 1( 0.8) | 20( 7.6) |
| | Sexual intercourse with friend | 15(11.6) | 3( 3.6) | 7( 2.7) |
| Sexual life in youth | Satisfied | 96(74.4) | 93(69.9) | 20( 7.6) |
| | Moderate | 31(24.0) | 37(27.8) | 169(64.5) |
| | Unsatisfied | 2( 1.6) | 3( 2.3) | 68(26.0) |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58.0%, 여성노인의 45.5%가 현재의 성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성생활의 방해 요소에 대해 남성노인은 상대방이 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건강을 해칠까봐 25.6%, 성교시 실패할 것 같아서 21.7%의 순이었으나 여성노인은 창피해서가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잖지 않은 것 같아서 30.8%, 건강을 해칠까봐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욕구의 해결방법에 대해 남성노인의 60.8%가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들었고 다음으로 다른 일에 몰두한다 24.2%, 윤락여성과 성관계 15.0%, 이성친구와 성관계 12.5%의 순이었으며 여성노인은 다른 일에 몰두한다가 5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와의 성관계 34.9%, 나의 의지나 종교적인 힘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시절의 성생활에 대해 남성노인의 74.4%, 여성노인의 69.9%가 원만한 성생활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 3.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30점 만점에 평균 20.9점(표준편차 3.71)이었으며 남성노인은 20.98점, 여성노인은 20.86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노인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서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성노인은 자아성취감과 현실만족도에 있어 남성노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p=.003), 교육수준(p=.036), 배우자 유무(p=.016), 거주형태(p=.039), 경제수준(p=.000), 한달 용돈(p=.000), 생활비 조달자(p=.001), 지각하는 건강상태(p=.005)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60대 군과 80대 군 간에, 배우자와 거주하는 군과 아들내외와 거주하는 군 간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보통인 군과 넉넉하지 않은 군 간에, 한달 용돈이 5만원 미만인 군과 30만원 이상인 군 간에, 생활비를 본인이 조달하는 군과 기타 군 간에, 건강상태가 좋은 군과 나쁜 군 간에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연령(p=.026), 경제수준(p=.013), 한달 용돈(p=.000), 생활비 조달자(p=.022), 지각하는 건강상태(p=.009)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60대 군과 70대 군 간에, 한달 용돈이 5만원 미만인 군과 30만원 이상인 군 간에, 생활비를 배우자가 조달하는 군과 기타 군 간에, 건강상태가 좋은 군과 나쁜 군 간에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Table 3〉 Life satisfaction of subjects (N=262)

| Components | Male Mean±SD | Female Mean±SD | t | p |
|---|---|---|---|---|
| I live more comfortably than other old persons. | 1.86±0.63 | 1.86±0.64 | -.053 | .957 |
| I am as happy as the days of my youth. | 1.79±0.60 | 1.87±0.59 | -.994 | .321 |
| I enjoyed more things than I expected in my life. | 1.72±0.56 | 1.79±0.57 | -1.086 | .278 |
| Self accomplishment | 5.38±1.25 | 5.53±1.39 | -.939 | .348 |
| I am old and weak. | 2.22±0.73 | 1.98±0.79 | 2.263 | .009** |
| I think I am more worthless person than others. | 2.52±0.64 | 2.62±0.59 | -1.283 | .201 |
| Comparatively, I have a good appearance. | 1.93±0.63 | 1.85±0.59 | 1.066 | .287 |
| Self esteem | 6.67±1.47 | 6.44±1.43 | 1.285 | .200 |
| Recently, I am very lonely in my life. | 2.34±0.78 | 2.33±0.67 | .116 | .908 |
| Recently, everything is boring to me. | 2.44±0.72 | 2.59±0.64 | -1.810 | .072 |
| Reality satisfaction | 4.78±1.25 | 4.92±1.11 | -.971 | .332 |
| It is not bad to grow old. | 1.93±0.68 | 1.90±0.51 | .379 | .705 |
| I have a plan for things to do within a month or a year. | 2.22±0.76 | 2.05±0.67 | 1.864 | .064 |
| Attitude to aging | 4.15±1.07 | 3.95±0.85 | 1.609 | .109 |
| Total | 20.98±3.66 | 20.86±3.76 | .277 | .782 |

〈Table 4〉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2)

| Characteristic | Classification | Male Mean±SD | F or t | p | Female Mean±SD | F | p |
|---|---|---|---|---|---|---|---|
| Age | 60-69 | 21.7±3.75[a] | F= 5.99 | p=.003** | 21.6±4.01[a] | F= 3.74 | p=.026* |
| | 70-79 | 19.9±3.13 | | | 19.9±3.32[b] | | |
| | ≤80 | 17.4±2.07[b] | | | 22.2±3.27 | | |
| Education level | Uneducated | | F= 3.42 | p=.036* | 19.9±2.93 | F= .79 | p=.501 |
| | Elementary school | 20.3±3.46 | | | 20.9±3.85 | | |
| | Middle school | 21.9±3.67 | | | 22.8±4.11 | | |
| | High school≤ | 22.0±4.04 | | | 22.5±3.63 | | |
| Presence of spouse | Yes | 21.4±3.65 | t= 2.45 | p=.016* | 21.4±3.89 | t= 1.66 | p=.099 |
| | No | 19.5±3.36 | | | 20.4±3.60 | | |
| Residence | Alone | 20.4±3.27 | F= 3.38 | p=.021* | 20.6±3.54 | F= 3.04 | p=.031* |
| | With spouse | 21.3±3.65[a] | | | 21.7±3.84a[a] | | |
| | With son couple | 15.8±2.99[b] | | | 19.2±4.15[b] | | |
| | With spouse, son couple | 20.5±3.11 | | | 18.2±2.64 | | |
| Religion | Yes | 20.9±3.84 | t=-.339 | p=.735 | 20.8±3.88 | t=-.757 | p=.450 |
| | No | 21.1±3.31 | | | 21.4±3.06 | | |
| Economic status | Rich | 22.5±4.50[a] | F=11.02 | p=.000*** | 22.6±4.83 | F= 4.52 | p=.013* |
| | Moderate | 21.6±3.23[a] | | | 21.5±3.66 | | |
| | Poor | 18.3±3.45[b] | | | 19.6±3.57 | | |
| Spending money per month(won) | 〈50,000 | 18.5±5.32[a] | F=13.19 | p=.000*** | 14.0±3.67[a] | F=13.59 | p=.000*** |
| | 50,000≤ 〈100,000 | 18.5±3.72 | | | 18.8±3.38 | | |
| | 100,000≤ 〈200,000 | 20.2±2.97 | | | 21.1±3.04 | | |
| | 200,000≤ 〈300,000 | 22.2±2.75 | | | 22.7±3.19 | | |
| | 300,000≤ | 24.3±2.67[b] | | | 23.9±3.44[b] | | |
| Economic supporter | Myself | 21.9±3.59[a] | F= 5.74 | p=.001*** | 20.7±4.11 | F= 3.33 | p=.022* |
| | Spouse | 19.4±3.31 | | | 21.8±3.90[a] | | |
| | Son couple | 20.1±3.33 | | | 20.8±3.09 | | |
| | Others | 17.4±2.70[b] | | | 17.9±3.51[b] | | |
| Perceived health condition | Good | 22.0±3.43[a] | F= 5.62 | p=.005** | 22.4±3.45[a] | F= 4.88 | p=.009** |
| | Moderate | 20.8±3.60 | | | 20.9±3.55 | | |
| | Bad | 18.9±3.62[b] | | | 19.8±3.88[b] | | |

* p〈.05, ** p〈.01, ***p〈.001, a, b : Scheffe test

로 나타났다〈Table 4〉.

### 5. 대상자의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남성노인의 경우 성생활의 중요성(p=.000), 현재 성생활 여부(p=.018), 성생활 빈도(p=.006), 성생활 만족도(p=.002), 젊은시절의 성생활 만족도(p=.022)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한 군과 보통 및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군 간에,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군과 성생활을 1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하는 군 간에, 현재의 성생활에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과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군 간에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성생활의 중요성(p=.047), 젊은시절 성생활 만족도(p=.000)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젊은시절 성생활에 만족했던 군과 보통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응답한 군 간에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 Ⅳ. 논 의

본 연구결과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남성노인은 41.1%였고 여성노인은 16.5%였다. 이러한 결과는 Park(2002)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87.0%, 여성노인의 66.6%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Table 5〉 Life satisfaction by sexual life (N=262)

| Variable | Classification | Male | F or t | p | Female | F or t | p |
|---|---|---|---|---|---|---|---|
| | | Mean±SD | | | Mean±SD | | |
| Importance of sexual life | Important | 22.5±3.49[a] | F=11.05 | p=.000*** | 21.6±3.93 | F= 3.12 | p=.047* |
| | Moderate | 20.5±3.35[b] | | | 21.4±3.65 | | |
| | Unimportant | 18.9±3.31[b] | | | 19.8±3.67 | | |
| Performance of sexual life | Yes | 21.5±3.82 | t= 2.39 | p=.018* | 21.5±4.00 | t= 1.21 | p=.227 |
| | No | 20.0±3.19 | | | 20.6±3.67 | | |
| Frequency of sexual life | less than 1 time a week≤ | 22.1±3.53[a] | F= 4.44 | p=.006** | 21.5±3.91 | F= 1.36 | p=.274 |
| | 1 time a month≤ | 22.1±3.52[a] | | | 23.1±2.61 | | |
| | 1 time every two month | 20.7±4.01[a] | | | 19.0±6.32 | | |
| | None | 14.7±1.52[b] | | | | | |
| Satisfaction of sexual life | Satisfied | 22.4±3.52[a] | F= 6.86 | p=.002** | 23.0±2.90 | F= 6.24 | p=.005** |
| | Moderate | 20.9±3.79[a] | | | 20.9±3.90 | | |
| | Unsatisfied | 16.0±1.41[b] | | | 11.0 | | |
| Sexual life in youth | Satisfied | 21.5±3.58 | F= 3.93 | p=.022* | 22.1±2.86[a] | F=23.52 | p=.000*** |
| | Moderate | 19.7±3.45 | | | 18.0±3.75[b] | | |
| | Unsatisfied | 17.5±6.36 | | | 16.7±7.64[b] | | |

* p<.05, ** p<.01, ***p<.001, a, b : Scheffe test

보듯이 남녀 노인 간에 성생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Lee(2004)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48.3%, 여성노인의 21.6%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해 남녀 노인 모두 성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과연 여성노인의 성적 욕구가 정말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조차 음란한 행동으로 몰아가는 노인 차별주의(ageism)와 특히 여성의 정절만을 강조하는 성차별주의(sexism)의 복합적 결과로 인한 표현의 억제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Kim & Lee, 2000).

현재 성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남성노인은 62.8%였으나 여성노인은 24.8%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Ahn(2002)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50.7%가, Kim(2002)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18.4%가 성생활을 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많은 대상자들이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Lee(2004)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75.0%, 여성노인의 46.4%, Park(2001)의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82.7%, 여성노인의 34.3%가 성생활을 유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듯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비율이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낮았던 것은 유배우자 노인의 비율이 낮았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생활 빈도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월 1회 이상이 가장 많아 각각 59.3%, 63.6%를 차지하였으며 남성노인 중 주 1회 이상 성생활을 한다는 응답은 17.3%였고 여성노인은 3.0%로 나타나 남녀 노인이 성생활을 하는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Yoo와 Kang(2003)이 도시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비율이 54%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으나 65세 이상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2001)의 연구에서 월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각각 71%, 41.7%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남성노인의 성생활 빈도는 비교적 낮았으나 여성노인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Lee(2004)의 연구결과에서 월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남성노인이 41.4%, 여성노인이 50.0%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높은 성생활 빈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성생활 빈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이성과의 육체적 접촉을 희망하는 반면, 여성은 정신적 교감을 선호하고 있어 이성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성별 선호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성생활 상대로서 남성노인은 85.2%가 배우자였고 다음이 가까운 친구 19.8%, 유흥업소 여성 18.5%의

순이었으나 여성노인은 90.9%가 배우자였고 다음이 노인단체나 경로당 동년배 6.1%라고 하였다. 특히 성생활을 하는 남성노인의 약 20% 정도가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Kim과 Lee(2000)의 연구에서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의 성관계 비율인 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Kim(2000)의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중 성 상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무응답 비율이 50%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성노인의 유배우자 비율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성생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인들의 성 전파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노인의 95.0%, 여성노인의 97.0%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Yang 등(2003)의 연구에서 69.2%의 노인이 현재의 성관계에 대해 '보통' 혹은 '만족한다' 고 응답한 결와 비교해 볼 때 성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Kim(2000)의 연구에서 26.9%가 성생활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해서도 어촌지역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생활의 방해 요소에 대해 남성노인은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노인은 33.1%가 창피해서, 30.8%가 점잖지 않은 것 같아서 등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나 윤리적인 의식이 성생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생활이 가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남성노인의 47.1%가 '배우자의 비협조'를, 여성노인의 77.8%는 '질병'이라고 응답했던 Yang 등(2003)의 연구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Kim(2000)의 연구에서 성적 활동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2.3%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 27.8%가 '점잖지 않을 것 같아서' 10.5%는 '성교 시 실패할 것 같아서',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로 나타난 결과와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존재로서 성적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노화 그리고 우리사회가 노인의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성생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혼을 해서 더욱 즐겁게 살 수 있는 노인이라면 재혼을, 재혼을 하지 않고도 연애를 한다든지 이성친구와 폭넓게 사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홀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면 홀로 지내는 방법을 선택하여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남성노인은 60.8%가 배우자와의 성관계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다른 일에 몰두한다 24.2%, 윤락여성과의 성관계 15.0%,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12.5% 등을 들었으나 여성노인은 이성과의 성관계 보다는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응답이 51.8%로 나타나 남녀 노인이 성욕구 해결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재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성생활을 거절당하는 데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노인 모두 20.9(2.09)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과 Lee(2000)가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1.97점, 2.07점이었던 것과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Lee(2004)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각각 2.1점이었던 것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네 가지 하위 영역별 점수의 순위를 보면 현실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아존중감, 노화에 대한 태도, 자아성취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Lee(2004)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하위 영역별 순위와 일치하고 있다. 굳이 성별에 따른 하위 영역별 점수의 순위를 구분해 본다면 남성노인은 자아존중감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서 여성노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노인은 자아성취감과 현실만족도에 있어 남성노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Kim과 Lee(2000)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삶의 만족도 하위 영역 중 자아존중감, 현실만족도, 노화에 대해 태도 등의 3가지 영역에서 남녀 노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남성노인에서,

현실만족도와 노화에 대한 태도는 여성노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경제수준, 한달 용돈, 생활비 조달자,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연령, 경제수준, 한달 용돈, 생활비 조달자, 지각하는 건강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있어 60대 노인이 70대 노인에 비해 남녀 노인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Kim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배우자 유무에 있어 남성노인은 배우자가 있어 함께 거주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여성노인은 배우자 유무와 거주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은 아내로부터 가사나 질병수발 등의 도움을 더욱 많이 받게 되지만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의 범위가 작고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며 살아왔기에 배우자 유무 및 공동거주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Kim과 Lee(2000)의 연구 및 노인생활만족도에 관한 Jang과 Lee(1996), Song (2000)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고 부부만 동거할 때가 아들 부부나 딸 부부와 동거할 때 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했던 Lee와 Lee(1999)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남녀 노인 모두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군 그리고 한달 용돈이 많은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생활비 조달에 있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조달하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 혹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Song(2000)과 Park(2002)의 연구결과 및 경제상태와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Lee(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상태는 삶의 만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년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국가적 차원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녀 노인 모두에서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군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2002)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좋은 군이 건강상태가 나쁜 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즉, 노인에게 있어 건강은 자신의 경제수준에 만족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생활만족도를 높이게 된다는 Yoo(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남녀 노인 모두 성생활의 중요도에 있어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군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의 경우 현재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성생활을 하는 노인이 성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Kim과 Lee(2000), Park(2002)의 연구결과와 활발한 성 활동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던 Brecher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성생활을 지속할 경우 성생활 차체가 삶의 중요한 활력소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Kim(200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성생활 유지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생활 빈도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의 경우 성생활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2002)의 연구에서 성 관계 횟수가 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성생활이 성적 욕구충족과 함께 위로, 위안이라는 애정적이며 정신적인 의미로 작용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노인은 두 달에 한번 정도 성생활을 하는 군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남성노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의 경우 성생활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의 일방적인 성행위(Park, 2002)라고 지적했듯이

성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부부간에 동등성을 인정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남성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진 행위였기에 여성노인들의 경우 성생활 빈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정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생활 만족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성생활에 만족하는 군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Park(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Park(2002)의 연구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 독립변수인 건강상태와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상태 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성생활 만족도 보다 다소 높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노인 간에 성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젊은시절의 성생활에 대해 원만했다고 응답한 군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초기의 적응이 중년기의 안정된 결혼생활과 연결되어 노년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Brubaker의 견해(Lee & Lee, 1999)대로 젊은시절의 원만한 성생활은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도모하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노인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생활이란 인간의 삶을 통해 항상 존재하며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젊은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적 문제들이 거론될 수 있다. 성생활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볼 때 노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인들이 직면한 성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인의 성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 집단이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 그들의 성적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며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성문제를 무조건 감추거나 억압하기 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Ⅴ.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어촌지역 노인들의 성생활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노인 성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10일까지 경상남도 N군의 1개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중 신체 외부적 결함을 보이지 않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8.8세였고 남성노인이 49.2%, 여성노인이 50.8%였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여성노인 각각 초졸(서당)이 56.6%, 85.0%였으며 배우자 유무에 있어 남성노인의 79.1%, 여성노인의 45.9%가 배우자가 있었다. 거주형태는 남성노인의 79.1%, 여성노인의 41.4%가 혼자 살고 있었다. 남녀 노인 각각 66.7%, 84.2%가 종교를 갖고 있었다. 경제수준은 남성노인의 20.9%, 여성노인의 35.3%가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으며 한달 용돈은 남녀 노인 각각 38.0%, 44.4%가 10~2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조달에 있어 남성노인의 58.9%가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여성노인의 34.6%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조달하였다.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남녀 노인 각각 41.1%, 25.6%가 건강상태가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들의 성생활 특성은 성생활 중요도에 있어 남성노인의 41.1%, 여성노인의 16.5%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노인은 62.8%, 여성노인은 24.8%였다. 성생활을 월 1회 이상 하는 경우는 남성노인의 59.3%, 여성노인의 63.6%였다. 성생활 상대는 남성노인의 85.2%, 여성노인의 90.9%에서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만족도에 있어 현재의 성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성노인의 58.0%, 여성노인의 45.5%를 차지하였다. 성생활의 방해요소로는 남성노인의 경우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가 34.1%로 가장 많았고 여성노인은 창피해서가 33.1%로 가장 많았다. 성욕구의 해결방법에 대해 남성노인의 60.8%가 배우자와 성관계였고 여성노인은 다른 일에 몰두한다가 51.8%를 차지하였다. 젊은시절의 성생활에 대해 남성노인의 74.4%, 여성노인의 69.9%가 원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30점 만점으로 남성노인이 20.9점, 여성노인이 20.9점이었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60대인 군(p=.003), 고졸이상 학력군(p=.036), 배우자가 있는 군(p=.016), 배우자와 거주하는 군(p=.039), 경제적으로 넉넉한 군(p=.000), 한달 용돈이 30만원 이상인 군(p=.000), 생활비를 본인이 조달하는 군(p=.001),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은 군(p=.005)에서 가장 높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80대인 군(p=.026), 경제적으로 넉넉한 군(p=.013), 한달 용돈이 30만원 이상인 군(p=.000), 생활비를 배우자가 조달하는 군(p=.022),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은 군(p=.009)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대상자의 성생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남성노인의 경우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군(p=.000), 현재 성생활을 하는 군(p=.018), 성생활 빈도가 주 1회 이상인 군(p=.006), 현재의 성생활에 만족하는 군(p=.002), 젊은시절의 성생활이 만족스러웠던 군(p=.022)에서 가장 높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군(p=.047), 현재의 성생활에 만족하는 군(p=.005), 젊은시절의 성생활이 만족스러웠던 군(p=.000)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제언

1) 지역자치단체 마다 노인의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상담 서비스센터와 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2) 가정에서 지내는 노인뿐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노인과 재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규칙적인 성생활이 노인의 수명이나 각종 질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보건진료원이 관내노인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Ahn, S. L.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elderly's depression and sexua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Jang, H., & Lee, C. W. (1996).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Past, present and future. *J Korea Gerontol Soc, 16*(2), 137-150.

Kang, S. Y. (2003).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frequency of sexual activity among older married coup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moon University, Asan.

Kim, E. G. (2002). *A study on acquaintance of the single aged with the opposite sex and their satisfaction in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ongju.

Kim, H. C. (2000). *A study on the element effecting on the aged's recognition on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im, J. H., & Lee, C. E. (2000). A study on Sexuality of the married korean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20*(3), 185-195.

Kim, T. H., & Han, H. S. (1996). Sex of elderly. *Sungshin Women's University Life Culture Research, 10,* 89-107.

Lee, I. S. (2004).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the rural

community. *J Korean Comm Health Nurs Acad Soc, 18*(2), 143-151.

Lee, S. H. (1992). *A study on th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urban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Lee, S. S., & Lee, K. J. (1999). A study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 - role attitude for the elderly man. *J Korea Gerontol Soc, 19*(2), 1-13.

Kim, K. J.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ld women's understanding of sex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Moon, J. H. (1999). *A study on sex right of ol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Park, H. K. (2001). *A study on the old aged sexual life in aging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Park, J. A. (2002). *Study on the influence of elderly's sexual life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Song, Y. M. (2000). *A study on marit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ongju.

Yoo, S. H., & Kang, S. Y. (2003).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frequency of sexual activity among older married couples. *J Welfare Aged. 20*, 139-155.

Yoo, S. H., Kang, J. H., & Hong, M. R. (2003). *Love and sex of elderly* (p.17). Seoul: Paeksan.

Yang, S. O., Kim, S. S., Jeong, G. H., & Kim, S. J. (2003). Life style and awareness of sexuality in elderly people. *J Korean Gerontol Nurs, 5*(2), 158-170.

Yoo, T. H. (2002). *A study on the factors to effect on satisfaction of life of the el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ABSTRACT

#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Lee, Inn-Sook**(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Kim, Hyang-Sook**(Dongcheon Primary Health Care Post)

**Purpose:** To measure the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a rural sea village.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 2006 to January 10, 2007 through a personal interview with 262 elderly registered at one primary health care post in Gyeongsangnam do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life satisfaction score was each 20.9. Of the score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p=.003, p=.026), education level(p=.036), presence of spouse(p=.016), residence(p=.039), economic status(p=.000, p=.013), monthly spending(p=.000, p=.000), economic supporter(p=.001, p=.022), and perceived health condition(p=.005, p=.009). Of the score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ual life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mportance of sexual life(p=.000, p=.047), performance of sexual life(p=.018), frequency of sexual life(p=.006), satisfaction of sexual life(p=.002, p=.005), and sexual life of youth(p=.022, p=.000). **Conclusion:** We should investigate influencing factors on sexual lif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include knowledge about sexual life of the elderly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Sex, Life satisfaction